



“주민들

▲ 도내 보건소 임무중 제1위가 보건교육임을 강조하는
梁錫珍 방역계장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대라는 특수지역인 관계상 관광보건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저 합니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성인병 예방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질것이고 만성질환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더욱 더 건강에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그마한 보통키에 당차게 보이는 제주도 보건사회담당관실 梁錫珍계장은 기자회견의 대담에서 당당하게 그의 소신을 피력하고 있었다.

이지적인 눈매에서 매사에 정열적인것을 느끼게 하는 梁계장은 제주도의 숨은 일꾼으로서 하나의 손색도 느끼지 않을 만큼 이론과 실재가 정확하기로 이름이 높다.

건협 제주지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도의 예산지원이나 기생충 주민검사사업, 성병사업, 심지어 보건소의 행정지시에 이르기까지 제주지부를 도와주는 열성파이기도 하다.

梁錫珍계장은 지난 69년 3월 25일 보건직으로 시보건소에 발령받아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이래 78년 1월 1일자로 도

보건사회담당관실에 발탁되어 도에서만 오로지 11년간을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온 숨은 일꾼이다.

『보건은 건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직으로 공직에 봉사해 온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사람이 외길인생을 걷는다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天職으로 알고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신조는 모든 보건사업을,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관된 마음으로 일에 봉직할 때 훨씬 훌륭히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추진할 때에도 “내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좌우명으로 추진할 때 보건사업은 가장 추진이 잘 된다는 사명감이 솟아 오릅니다.』

梁계장은 제주도가 당면한 여러가지 문젯점을 예리하게 파헤치기도 한다.

『이제 하절기가 돌아옵니다. 우리 도는 기후 환경이 특수해서 여름에는 모기서식으로 인한 일본 뇌염이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근년에 들어 와서는 1건의 발생건수도 없었습니다만 주거환경

속에 파고드는 보건교육이 절실”

제주도 보건사회담당관실 **梁錫珍** 방역계장

개선등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외항선원이 많이 기착하는 항구이기 때문에 AIDS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에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부두부근에 있는 건입동에 취약 윤락여성들을 위한 사회정화차원의 「건강상담소」도 개설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검진사업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힘주어 이야기하는 梁계장의 말씀속에서 기자는 제주도 보건사업의 청사진을 눈으로 보는것 같아 흐뭇한 마음 금할 수 없었다.

『89년도 이후에는 건강관리협회 지부 사무실을 시내 중심가에 마련하여 명실공히「도민건강센터」를 건립하여 市보건소 업무의 반이상을 대폭이관하여 위생업소 사업이라던가 건강진단규칙에 근거한 모든사업을 이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사업을 해오는 동안 보람된 일이라면 영세민들이 간이식당을 개업하는데 있어 우선 생계유지가 급선무이므로 개업을 도와주어 그들을 도왔

던 일, 의약행정면에서는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이 생겨 영세민에게 의료혜택을 준 일등이 보람이라면 보람이라고 꼽을 수 있다.

『또한 방역업무를 담당했을때 의약계에서 분리시켜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그 계획대로 지시하여 시행되었을 때의 보람이라던가 건협, 결협, 나협의 공중보건의 배치, 건협의 건강상담소설치 활성화등을 꼽을 수 있지요』

梁계장은 2,000년대에는 병원의 수준이 향상되므로 건협을 제주도 건강관리센터로 명실공히 활성화시키겠다고 포부가 대단하다.

끝으로 그는 현재도 도내 보건소의 13개 임무중 1위가 보건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속에 파고드는 보건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도시근교와 농어촌 중심의 계몽교육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실토하기도—.

부인 金明順여사와의 사이에 2男2女. 바둑4급의 실력으로 독서를 즐기는 취미. 더구나 제주지부 金秉基국장과는 제주농고 선후배사이로 각별한 사이라고 슬쩍 귀띔도 잊지 않는다